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 완화

정읍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에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미만 자녀가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감면 신청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됐으며, 세대주는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가구당 매월 최대 9300원(5톤 사용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1만 160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식량산업종합계획 실무협의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1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식량산업종합계획(5개년)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고 부안군 식량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지역농협 관계자, 농업인 단체대표, 식량작물 생산 유통조직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부안군 식량산업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식량산업종합계획은 식량작물 분야의 생산 및 유통 체계화, 시설투자 및 운영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기존 식량산업에 대한 투자 현황과 적정 자금을 등을 검토·분석해 종합적인 지원책과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단으로부터 서면, 현장 발표 등 심사 평가를 받게 된다.

결과는 최종 오는 12월 평가 승인을 받으면 전라작물 산업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 비 매입자금 등 국비 연계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품질 문화도시 위상 높인다

고창군, 보물 1건 · 전북자치도 지정유산 5건 지정 · 승격 등 총력전 벌여

고창군이 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격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8기 고창군은 국가유산 지정·승격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 을 보물로 승격시키고, '고창 칠암리 용산 고분', '고창 민수당' 등 2건을 고창군 도 지정 유산으로 승격했다. 또한 '선운사 도솔암 현왕도', '선운사 도솔암 목석도', '지수장' 등 3건을 도 지정 유산 신규 지정에 성공했다. 앞으로 황윤석 생가 이재난고, 고창 상원사 목조삼세 불좌상,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고창 중월리 이팝나무 등을 국가 지정 유산으로 지정·승격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고창군은 전북준장군 동상을 군청 앞에 건립한 데 이어, 동상이 설치된 공원 옆에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을 새로 조성한다. 향후 무장기포지 및 전봉준생가터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전봉준장군의 출생지로서 고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 동학정신을 선양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창황윤석도사관은 건축가 유현준 교수(홍익대학교 건축학과)가 '종묘'를 모티브로 전통을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도서관이다. 큰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목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비대칭적인 지붕이 만들어내는 착시효과로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목조 공사는 2024년 7월에 완료하고,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립미술관은 총사업비 107억원으로 건

축 연면적 2,070㎡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고창읍 도서관에 건립되며, 현재 실시설계중이다.

또한 군은 관소리 및 고창농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동리 신재효 고택 일원에 신재효 관소리공원을 개관했다. 동리 신재효의 유업을 계승하고 차세대 소리꾼을 양성하기 위해 명창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매주 목요일 '관소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고창농악전수관에서는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 운영으로 고창농악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창농악 전승환경 개선을 위해 1회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중이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유치원 등 학교 경계 금연구역 확대

부안군, 어린이집 등 경계선 10m서 30m 확대... 학교 경계선 30m 신설

부안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금연구역이 30m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학교(초·중·고등학교) 시설은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기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보건소는 어린이집 17개소, 유치원 21개소, 초·중·고등학교 38개소에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고 흡폐이지,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집중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통합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이 오는 15일부터 서울시니어스타워(주) 고창웰파크몰에 입점하여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창군 통합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 오픈

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웰파크몰에 입점, 우수 농특산품 판매

고창군 통합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이 오는 15일부터 서울시니어스타워(주) 고창웰파크몰에 입점하여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창마켓 입점자협의회 32개 업체가 입점하여 웰파크시티를 찾는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홍보 판매하여 고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일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웰파크몰이 있는 서울시니어스타워(주) 고창웰파크시티는 고창읍 석정리 일원에 약 500만평 규모로 조성돼 있다.

실버타운, 석정온천 휴스파, 힐링카운터, 석정힐 컨트리클럽, 웰파크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고, 최근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신축하면서 새로운 관광

휴식 복합단지로 거듭나면서 많은 유동인구와 소비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마켓은 지난 2월 금호고속 광주 유스퀘어 특산물판매장을 오픈한데 이어 고창웰파크몰에 로컬 전문매장을 오픈했다. 앞으로 상하농원 파머스마켓에도 입점해 고창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온라인 유통 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고창 농특산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언택트와 로컬매장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통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안전大 전환 점검서 전북 우수기관 선정 '쾌거'

정읍시, 자가 안전 점검표 배포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 · 안전문화 확산 기여

정읍시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4월 22일~6월 21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노후시설을 비롯한 안전취약시설 총 107개소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

건축, 소방, 전기, 가스 4개 분야에 걸쳐 실시한 점검 결과, 31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 및 보수·보강 조치를 요청했고, 그 중 18개소에 대한 조치

가 완료됐다. 나머지 13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 확보를 통해 후속조치 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열화상카메라, 드론 멀티미터 등 첨단 과학기술 장비 88대를 활용하여 60개소를 점검했다.

이러한 점검 실효성 확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간예찰단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가정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가 안전 점검표를 배포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점검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공로"라며 "앞으로도 안전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본격 운영

고창군이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1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은 각 부서의 입구 벽면에 위치한 '스마트 업무 안내 시스템'과 본관 1층의 대형 키오스크의 터치형 스크린을 통해 청사 현황 안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서별 좌석 배치 △담당업무 안내 △담당자 전화번호 등 방문 민원인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조작개편이나 인사이동시 종이 조지도를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간단한 업데이트를 통해 각종 정보를 빠르게 현행화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창군은 분청 도입을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업데이트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